

<2010년 12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>

1.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입으로만, 마음으로만 만나려 하기 때문이다. 주님을 만나려면 절대적인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문을 연속하여 끝까지 두드려야 된다.
2. 주님은 사랑의 문 뒤에서 만나기를 몇 년씩, 몇 십 년씩 심히도 기다리셨다. 그런데 왜 그 문이 안 열리는가? 두드리는 자가 더 깊이, 더 차원 높이 더 두드려야 한다.
3.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면 영의 평온과 마음의 평온이 충만하여 마음에서 걱정과 염려와 초조함이 사라진다. 어느 때는 영의 눈을 떠 주님을 보기도 한다.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셔도 마음으로 느껴 보고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.
4.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. 주님과 통하여 그 마음이 이해되고, 마음이 이리저리 얽힌 것들이 풀어지고, 마치 어떤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것이 풀어지듯 기쁘다.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.